가정통신 2021-5

이상한 버릇? 틱? 바로 271



"우리 아이가 자꾸 눈을 깜박거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계속해요! 혹시나 하고 안과에 갔는데,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하네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음음' 하고 소리도 내요. 우리아이가 왜 이럴까요? "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버릇과 초등학교 입학 무렵 흔히 시작하는 틱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님의 도움과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우리 아이에게 버릇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버릇

아이들은 자라면서 좋은 일도 겪지만 때로는 힘든 일, 불안한 일, 긴장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손톱 물어뜯기, 손가락 빨기, 머리카락 뽑기, 다리 떨기 등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습관이 되면 오래지속하기도 합니다.



01

우리 아이에게 버릇이 있어요.

부모님이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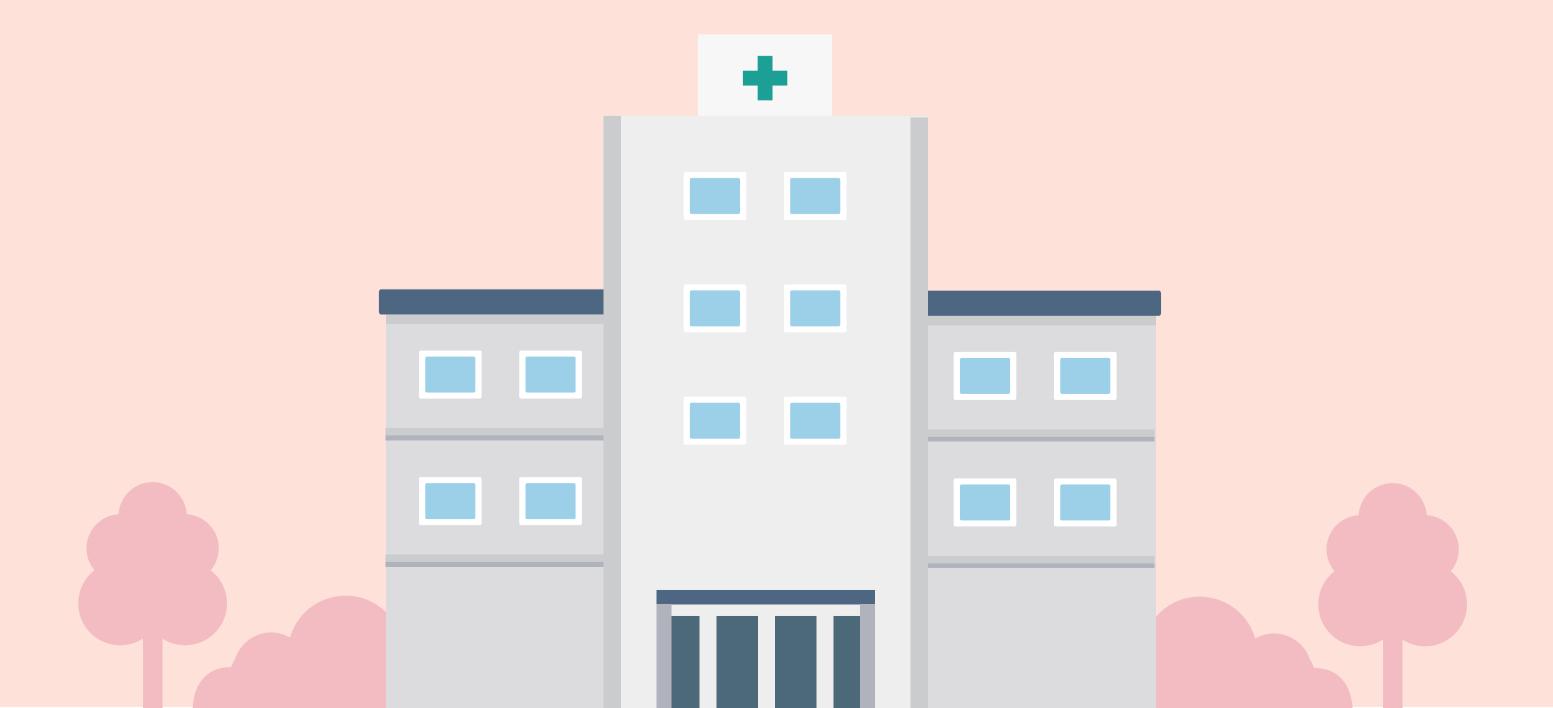
- ✔ 아이들의 버릇을 단번에 해결하기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이사, 전학, 부모의 불화, 중요한 시험 직전)나 조절할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이 있어서는 아닌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버릇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손톱 물어뜯기 등이 매우 심각하여 상당한 불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머리카락을 뽑는 것으로 인해 탈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02

이럴 때는 틱을 의심하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버릇과 틱을 구분하기 힘들어 '우리 아이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데, 그 모습이 상황에 맞지 않고 짧고 빠르고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틱(Tic)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틱

- 1 눈을 깜빡거려요. 곁눈질하거나 흘겨봐요
- 2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입을 쫙쫙 벌려요
- 3 머리를 흔들거나 목을 옆으로 젖혀요
- 4 어깨를 들썩거리고 몸통을 앞뒤로 꿀렁거려요
- 5 팔꿈치를 쭉쭉 피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움직여요

음성 틱

- 1 코를 킁킁거려요
- 2 목에서 컥컥거리며, 헛기침해요
- 돌고래 소리처럼 갑자기 높은 음의 소리를 내요
- 4 특정 단어나 욕설을 불쑥 내뱉기도 해요

아이에게 생긴 틱,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알아야 할 틱의 양상

- 한동안 틱 증상을 보이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몇 달 후 다시 보이거나 다른 틱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 ✓ 피곤, 흥분, 긴장, 불안,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행동

- ✓ 부모님이 틱 증상에 대해서는 혼내거나 지적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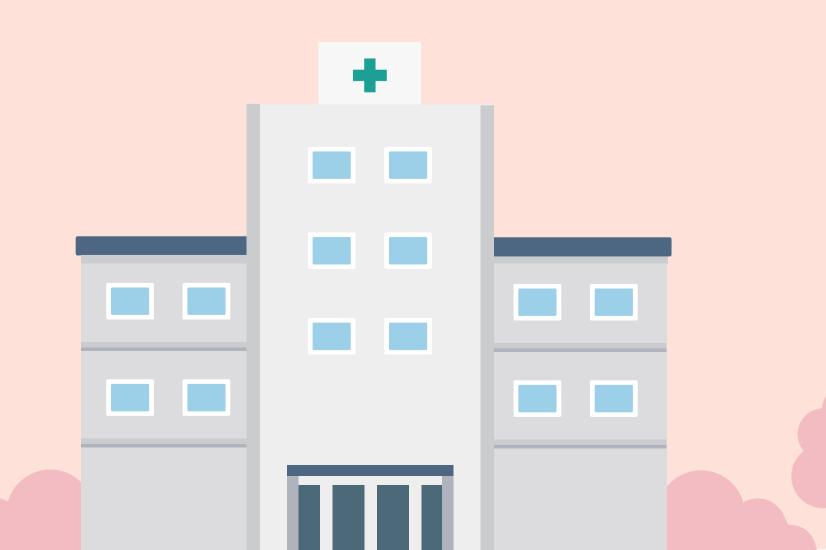
이런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으세요!

틱 증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진료가 필요합니다.

- 1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틱
- 2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음성과 운동 틱
- **B** 틱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 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강박장애, 불안증, 우울증 등을 동반할 경우

뚜렛장애

틱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닌,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1년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



애들이 놀린다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해요.



가정통신 2021-5

이상반 버릇? 특? 바로 악기

카드뉴스 문의사항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4640

